
일본인 연구자가 바라본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

요시이 히데오(吉井秀夫)**

목 차

I. 머리말

II.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 개시 이전의 조사연구 동향

1. 조선고적조사사업과 관련 자료의 취급
2. 해방 후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의 정리 동향

III.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에서의 일본 소재

관련 자료 활용 사례

1. 경주 금관총 관련 자료
2. 도리이 류조의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조사 관련 자료
3. 김해 회현리패총 조사 관련 자료
4. 다이쇼(大正) 2년도 고적조사 관련 사진자료

IV. 맺음말

- 일본 소재 일제강점기 자료를 공개 및 공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
-

* 이 글은 2022년 ‘국립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자료의 공개와 활용’ 학술대회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일본 교토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일제강점기의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관한 고고학적인 조사는 도쿄제국대학 및 교토제국대학의 연구자들이 실시했다. 조사 후 그들은 복명서와 함께 출토유물과 유리건판 등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제출했다. 그리고 조사를 기록한 야장, 도면 및 인화된 사진들을 일본 내지에 들고 가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해방 후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대한민국과 일본 여러 기관에 따로 소장하게 되어서 당시의 조사성과를 연구하는 데 큰 장애가 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자료 공개 사업을 위해서 필자는 교토대학을 비롯한 일본 소재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를 소개해 왔다. 한국과 일본 자료를 함께 검토한 결과, 경주 금관총, 김해 회현리패총, 대구 달성, 경주 월성 등의 조사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 조사 당시에 촬영된 사진들의 전체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유리건판자료와 일본 각 기관에 남아 있는 인화사진을 종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었다.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본에 남아 있는 관련 자료를 소개해서 한국에 남아 있는 자료와 종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양국의 자료가 통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자료 공개 사업의 성과를 일본에서 소개할 필요가 있다.

Ⅰ 주제어 Ⅰ

조선고적조사사업, 복명서, 유리건판, 금관총, 회현리패총

I. 머리말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은 일본인이 대한민국에 남긴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현재의 연구 수준으로 정리 공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미보고 혹은 간단한 보고밖에 없는 조사 관련 자료의 실태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석 및 검토를 통해서 이들 자료에 대해 새로운 역사적인 의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한국고고학의 학술적인 발전을 위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또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관한 여러 가지 문서류 및 유리건판자료 등이 온라인으로 공개됨으로써 나라에 관계없이 일차 자료를 이용해서 조선고적조사사업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하다.

필자는 그동안 본 사업에 협조해서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을 비롯하여 일본 각지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일본인 연구자의 입장에서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학술적인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조선고적조사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본 내지¹⁾와 식민지 조선에 어떤 자료가 어떻게 소장되게 되었고, 해방 후 일본에 남겨진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다음으로 필자 자신이 관여한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에서 교토대학을 비롯한 일본 소재 자료를 어떻게 제공했으며, 그 공개가 미친 영향은 어떤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II.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 개시 이전의 조사연구 동향

1. 조선고적조사사업과 관련 자료의 취급

한국통감부 다쿠시(度支)부의 의뢰로 도쿄제국대학의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867-1935)가 1909년부터 한반도 각지의 문화재 조사를 시작함으로써 일본인이 주도하는 한반도 각지의 문화재(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연구(이하, 이러한 조사사업을 조선고적조사사업(朝鮮古蹟調查事業)이라고 함)이 시작되었다. 1915년에는 경복궁 안에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개관되었고, 1916년에 고적 및 유물보존규칙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설립된 고적조사위

1) 대일본제국은 원래의 지배 영역(현재의 일본 영역과 거의 일치함)을 ‘내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롭게 얻은 지역을 ‘외지’로 구분하였는데, 양 지역은 행정체제를 비롯해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가(대한민국, 일본 등)영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편의상 일제강점기 때의 ‘내지’를 ‘일본내지’, 한반도를 ‘식민지 조선’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원회가 세운 조사계획에 따라 매년 조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각지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들은 주로 도쿄제국대학 및 교토제국대학의 연구자들이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에는 일본인 직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사진 촬영기술이나 유적 측량기술을 배운 기술자들이었고, 일본 내지에서 온 연구자를 도와주는 입장이었다. 일본 내지에서 온 연구자는 먼저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필요한 기재와 자료를 받은 후에, 조사할 유적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지에서의 조사가 끝나면 일행은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돌아와서 출토 유물 및 촬영한 유리건판과 함께 조사복명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조사 때에 만든 도면과 야장, 유리건판을 인화한 사진 등은 조사 담당자가 대학으로 가지고 간 후,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일본 내지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吉井秀夫 2013, 2016)(그림 1).

이상과 같은 조사체제였기 때문에,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관련된 자료는 조선총독부박물관과 도쿄제국대학 및 교토제국대학의 연구자가 나누어서 따로따로 수장, 관리하게 되었다. 조선고적연구회가 성립(1930년)되었고,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이 발포(1933년)된 1930년대에는 일본 내지에서 고고학적인 조사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부임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조선고적조사회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대부분은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1893-1983)를 중심으로 한 교토제국대학 고고학연구실에서 편집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조사관계자료의 대부분은 우메하라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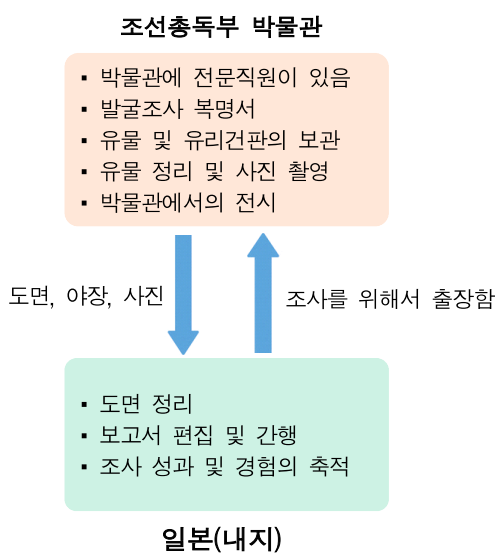


그림 1.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의 소장상황(일제강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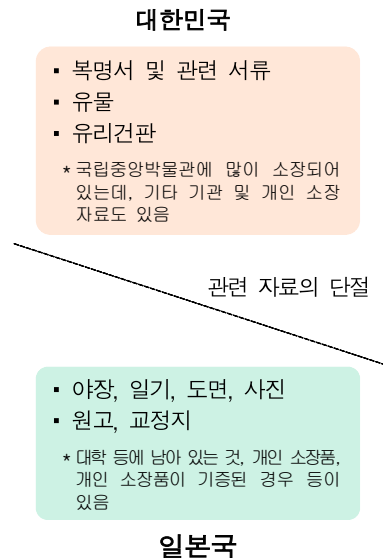


그림 2.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의 소장상황(현재)

1945년 8월 15일의 일본제국 패전으로 일본으로 귀국하게 된 조선총독부박물관 등에서 근무한 일본인 연구자는 자신의 조사연구 자료를 거의 들고 나갈 수 없었다.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마지막 관장이었던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1907-2011)는 1946년 5월에 일본으로 귀국할 때까지 김재원을 비롯한 조선인 직원에게 박물관 업무를 인계하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 후 6.25 사태로 인해 적지 않은 자료가 행방불명이 되기도 하여 일제강점기 자료의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었다(그림 2).

2. 해방 후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의 정리 동향

조선고적조사사업에 참가한 대부분의 일본인 연구자는 해방 후 일본 국내에서 연구직을 얻어서 일본고고학의 조사연구를 추진시켰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조선총독부박물관 관장이었고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1892-1960)는 패전 후 일본고고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인 일본고고학협회 초대 위원장에 취임하여, 일본 야요이(彌生)시대가 도작문화였음을 알게 한 시즈오카(静岡)현 도로(登呂)유적을 비롯한 일본 각지 유적의 발굴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도쿄학예대학 교수가 되었고, 1959년부터는 국립나라(奈良)문화재연구소 소장이 되었다. 1930년대 이후 조선고적조사사업에서 후지타와 함께 중심적인 입장에 있었던 우메하라 스에지는 하마다 고사쿠(濱田耕作, 1881-1938)가 1938년에 별세한 후 교토제국대학 교수로 승진해서 패전 후에도 연구를 계속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업무를 인계한 후 귀국한 아리미쓰 교이치는 GHQ 규슈(九州)지구 군정사령부에서 근무한 후, 1950년부터 교토대학 강사가 되어 한국고고학 연구를 재개했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한 연구자 가운데, 본인이 조사한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자료를 쓰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는 그 계획의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메하라 스에지와 후지타 료사쿠가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려고 기획한 『조선고문화총감(朝鮮古文化總鑑)』은 제4권까지 간행된 후 사업이 중단되었다(梅原末治·藤田亮策 1946, 1948, 1959, 1966). 귀국 후에 나라 및 도쿄국립박물관과 국립나라문화재연구소에 근무한 가야모토 가메지로(榎本龜次郎, 1901-1970)는 오바 쓰네키치(小場恒吉, 1878-1958)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1924년에 발굴한 석암리 194·200·20·52호묘의 보고서를 만들고자 했다. 또 김재원이 제공한 사진과 자신이 가져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942년에 본인이 조사한 석암리 219호묘의 보고서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보

고서는 결국 가야모토가 별세한 후에 간행되었다(樂浪漢墓刊行會 1974, 1975). 아리미쓰 교이치도 우메하라 고고자료 등을 이용하면서 조사를 담당한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려고 했는데, 국립중앙박물관 등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사진 제공 등의 도움을 받은 후에 겨우 보고서를 간행할 수 있었다(有光教一 외 2000, 2002, 2003).

일본인 연구자가 가져 온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에는 패전 후에 연구기관에 기증되어서 정리 및 공개사업이 진행된 예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메하라(梅原) 고고자료이다. 우메하라 스에지는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미국 록펠러재단에서 받은 연구비로 우메하라가 수집한 사진, 도면, 탁본, 기록류를 정리하여 자료 목록을 작성(東洋學術協會 1966)했고, 그 원본을 도쿄에 있는 도요(東洋)문고에 기증했다.

우메하라 고고자료는 패전 후 일본에서의 한국고고학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이 자료의 정리를 담당한 아리미쓰 교이치는 우메하라가 수집한 자료를 잘 활용해서 마제석검과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연구서를 간행할 수 있었다(有光教一 1959, 1962). 아나자와 와코(穴澤和光)와 마노메 준이치(馬目順一)는 우메하라 고고자료를 활용하면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1880-1959)가 발굴조사 했으나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나주 반남면고분군과 창원 교동고분군의 조사성과를 정리 공개했다(穴澤和光 외 1973, 1975). 아나자와는 자신들의 작업이 대부분을 잃어버린 오래된 책의 일문(逸文)을 모아 원래 내용을 재현하려고 하는 문헌사학자의 작업과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가 장래 실제로 출토품을 연구할 기회를 얻을 한국 연구자로부터 수정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穴澤和光 외 1975: 24). 이러한 견해는 일본에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는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당시의 조사에 관한 자료 목록이 만들어져서 공개된 예로는 오가와 게이키치(小川敬吉, 1882-1947) 자료도 유명하다. 오가와와 조선고적조사사업 가운데 고건축의 수리사업에 많이 참가했는데, 패전 전에 조선총독부를 퇴직했기 때문에 본인이 참가한 조사 관련 자료를 많이 가져올 수 있었다. 1947년에 오가와가 별세한 후 우메하라 스에지와 아리미쓰 교이치의 중개로 그가 남긴 건축 관련 자료는 교토대학 공학부 건축학교실에 기증되었고 자료 목록이 만들어졌다(水谷 편찬 1985). 그 후 자택에 남아 있던 자료 일부를 사가(佐賀)현립 나고야조(名護屋城)박물관이 구입해서 그 목록을 공개하였다(浦川和也 2003). 그리고 이들 자료를 소개하는 특별전시도 개최된 바가 있다(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 2016). 또 오가와 자료를 활용해서 부석사 및 성불사(杉山信三 편 1996), 수덕사(植山茂 외 2003) 수리공사의 기록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수덕사에서 개최된 특별전시에는 오가와 자료에 들어 있는 수리공사 관련 자료가 일본에서 출품되었다(修德寺槿域聖寶館 2008).

세키노 다다시의 조선고적조사 관련 자료는 일본 및 중국 조사자료와 함께 도쿄대학 대학원 공학계연구과 건축학교실에 있었는데, 현재는 종합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자료 가운데 『조선고적도보』 제3권(朝鮮總督府 1916)에 게재된 고분 출토 유물은 1989년에 교토문화박물관에서 개최된 특별전 《海を渡って來た人と文化 古代日本と東アジア(바다를 건너온 사람과 문화 고대일본과 동아시아)》에 출품되었고, 유물들의 실측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定森秀夫 외 1990, 1992, 1999; 早乙女雅博 1997). 이들 유물을 포함한 자료 목록도 만들어졌다(早乙女雅博 2000, 2002, 2004). 그 후 세키노가 남긴 자료가 다른 기관에도 소장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이들 자료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그동안의 자료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5년에는 도쿄대학 종합박물관에서 《關野貞 아시아조사》전이 개최되었고, 전시 도록도 간행되었다(藤井惠介 외 2005). 그 후 세키노 다다시의 일기가 번각(飜刻)되었고(關野貞研究會編 2009), 현재는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공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어느 정도 정리 공개가 진행된 자료 이외에 개인적으로 소장되고 있어서 실태가 불분명한 관련 자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 도리이 류조 자료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또 필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사진기사로 활동한 사와 순이치(澤俊一)가 남긴 관련 자료(吉井秀夫 2008)와 오마가리 미타로(大曲美太郎)를 비롯한 부산고고회 관계 자료(吉井秀夫 2002, 2006a~c)를 소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들 개인 소장 자료의 조사 및 공개사업은 잘 진행되어 있지 않다. 그 최대의 이유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일제강점기 자료가 조선총독부박물관이 관리한 공문서였음에 비해 일본에 소재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각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사적 문서라는 점이다. 또 세키노 다다시, 우메하라 스에지, 도리이 류조 등의 연구 대상 지역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다양했기 때문에, 한국고고학 전공자만으로는 자료 전체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사정도 있다. 조사에 참가한 연구자가 모두 별세한 현재, 그들이 남긴 자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겠다.

그런데 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은 일본에 소재하는 관련 자료의 실체를 밝히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다음 장에서는 필자가 관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조사 사례를 소개하겠다.

Ⅲ.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에서의 일본 소재 관련 자료 활용 사례

1916년에 교토제국대학 문과대학(1919년부터는 문학부)에 일본 최초의 고고학강좌가 설치되었다. 고고학강좌 초대 교수에 취임한 하마다 고사쿠는 1918년에 조선고적조사위원회에 취임하고, 같은 해 9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우메하라 스에지와 함께 성주 성산동고분군, 고령 지산동고분군, 창녕 교동고분군에서 고분을 발굴 조사했다. 그 후 하마다와 우메하라는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깊이 관여했고, 적지 않은 수의 발굴조사 보고서가 교토제국대학 고고학 연구실에서 편집·간행되었다.

필자는 2000년 4월에 교토대학에 부임한 후 고고학연구실에 남아 있는 조선고적조사사업 관계 자료를 정리해 왔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과 연계하면서 교토대학에 있는 자료를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다.

1. 경주 금관총 관련 자료

경주 금관총은 1921년에 흙을 구하기 위해 분구가 굴착되는 과정에서 유물이 노출되어 고분의 존재가 알려졌는데, 경주에 살았던 일본사람들이 주요 부장품을 상세한 기록 없이 수집해버렸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의 조사를 위해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모여 있던 세키노 다다시, 하마다 고사쿠, 우메하라 스에지가 경주에 가서 유물의 출토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질문 조사를 한 후, 출토 유물을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하마다 고사쿠의 지도하에 우메하라 스에지를 중심으로 유물정리가 시작되었다. 1924년에는 보고서의 본문 상책(濱田耕作 외 1924a)과 도판 상책(濱田耕作 외 1924b)이 간행되었는데, 같은 해 말부터 우메하라의 유럽 유학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었다. 그 후 1928년에 도판 하책이 간행되었지만 본문 하책은 간행되지 않았다.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는 금관총 유물 사진이 대소 2개의 상자 안에 수납되어 있다. 또 도판 상책을 작성하기 위해 준비했던 자료와 본문 상책 원고도 남아 있다. 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금관총의 재발굴과 출토 유물을 재정리하게 되면 교토대학에 남아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주시의 의뢰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추진한 ‘신라고분 정밀측량 및 분포조사’ 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사업에서 필자가 담당한 일은 (1)보고서인 “경주 금관총과 그 유보” 번역 감수, (2)교토대학 종합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관총 관련유물 조사보고 감수, (3)교토대학 고고학연

구실이 소장한 금관총 관련 자료의 정리 및 보고의 세 가지였다.

(1)의 보고서 번역(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편 2011) 감수에서는 현대 일본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적지 않은 문장을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되도록 노력했다. 또 세계 각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용문헌을 참조하면서 유적명 및 유물명 표기를 확인했다.

(2)에 대해서는 당시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던 이사하야 나오토(諫早直人), 김대환, 김우대, 쓰치야 다카후미(土屋隆史)가 실측 및 보고를 담당했다(이사하야 외 2001). 이들 유물은 금관총 보고서 본문 상책 및 도판 상책이 간행된 후인 1926년에 하마다 고사쿠가 고고학연구실에 가져 온 것이다. 금속제품에는 편원어미형 행엽과 영락 달린 입주부운주를 비롯한 마구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파편 자료이다. 또 상세한 제작기술은 보고서에서 보고된 예와는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유리옥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것을 한 두 개씩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하마다는 금관총 출토 유물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몇 가지의 파편 자료를 교육용 자료로써 교토제국대학 연구실에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의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남아 있는 관련 자료(吉井秀夫 2011) 가운데 가장 양이 많은 것이 사진자료이다. 이들 사진을 보고서에 게재된 사진,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소장된 사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행된 유리건판목록(국립중앙박물관 1977)과 대비하면서 정리했다.

사진류 가운데 금관총 및 그 주변의 고분을 촬영한 것은 보고서의 기술을 통해서 경주도요켄(東洋軒) 사진관이 촬영한 사진이 제공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 종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발견 출토 직후의 유물 상태를 촬영한 사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되었다고 판단되는 유물 사진을 검토한 결과, 토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유물은 적어도 두 번 이상 촬영할 기회가 있었고, 이들 가운데 가장 좋다고 판단된 사진이 보고서에 게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보고서에 게재된 사진에 해당되는 유리건판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목록에서는 찾지 못했고,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남아 있는 사진은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게재되지 않았던 사진이었다. 또 우메하라 고고자료에는 보고서에 게재되어 있는 사진과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진이 모두 있었다. 이상과 같은 대응관계로 보아 우메하라 스에지는 사진을 2세트 준비해서 한 쪽은 보고서 도판을 편집하기 위해서 썼고, 나머지 한 쪽은 개인 연구용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타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는 유물의 출토상황을 복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면, 도판의 원도, 도판 편집용 원고 등이 남아 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보고문(吉井秀夫 2011)을 참

조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조사 야장, 유물을 정리할 때 만들어진 도면 및 카드류 등 우메하라의 개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은 현재는 우메하라 고고자료에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 소장자료를 공개한 후,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금관총 출토유물이 재정리되었고(김현중 2016), 남아 있는 유구가 재발굴(김대환·안경화 2016)되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유물의 재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이사지왕명 삼류한두대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주제전시 《금관총과 이사지왕》에서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이 소장한 사진, 도면, 원고류를 출품할 수 있었다.

2. 도리이 류조의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조사 관련 자료

도리이 류조(1870-1953)는 도쿄제국대학 인류학교실을 거점으로 해서 일본, 대만, 몽고,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각지를 답사한 인류학자이다. 도리이는 1911년부터 1915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의 사료조사로서 한반도 각지와 중국 동북지방의 일부를 답사했다. 또 1916년 이후에도 고적조사위원으로 여러 번 조사에 참가했다. 하지만 그 동안의 조사 성과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고, 그 개요를 도리이 자전(鳥居龍藏 1953)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도리이 류조가 남긴 조사 관련 자료는 도쿠시마(徳島)현 나루토(鳴門)시에 설립된 도리이 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는데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으로 박물관 건물에 피해가 생겨 소장 자료의 정리와 박물관 이전 계획이 진행되었고, 2010년 11월에 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이 재개관되었다. 그때 종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도리이의 한반도 조사 성과를 보여주는 도면의 일부가 전시된 것을 계기로, 1914년에 경상북도 일대를 답사했을 때 휴대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도류와 1917년에 경주 월성, 대구 달성, 김해 회현리패총의 발굴조사 때 만들어진 도면류가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같은 시기에 함순섭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는 도리이의 복명서를 바탕으로 1914년과 1917년의 달성과 경주 월성 발굴조사의 실태를 검토하고 있었다(함순섭 2013). 그 연구성과와 비교 검토한 결과, 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이 소장하는 발굴조사 관계 도면은 복명서와 함께 제출된 도면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종래 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에서는 한국 조사 관계 자료의 실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 자료 공개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들 도면의 중요성을 설명한 결과, 박물관쪽이 이들 자료를

한국과 일본에서 공개하는 것을 양해해 주었다.

2014년 3월에는 함순섭이 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직접 조사했다. 또 도리이 류조 기념관이 소장한 관련자료 사진은 국립대구박물관의 달성 조사보고서(이현태 2014) 및 국립김해박물관의 김해 회현리패총의 조사보고서(국립김해박물관 2014)에 제공되었다. 일본에서는 필자가 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연구보고에서 소장자료를 소개했고(吉井秀夫 2015), 함순섭의 논문도 요시이가 번역해서 소개했다(함순섭 2015). 이렇게 해서 새로 발견된 도리이 류조의 한국 조사 관련 자료를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공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조사를 계기로 해서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자료를 종합하면서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 실태를 정리하였다(황은순 2016). 또 필자는 도리이 류조의 한반도 조사의 횟수와 조사경로에 대한 종래의 논의를 정리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조선고적조사위원회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1911년부터 1923년까지의 도리이의 조사내용을 재정리했다(吉井秀夫 2020). 또 1912~1913년의 제2회 자료조사와 그 후에 계속된 일본 미야자키(宮崎)현에서의 조사에 동행한 서양화가 사토 준키치(佐藤醇吉, 1876-1958)가 그린 그림이 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2014 a · b)과 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 2014)에 남아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소재하는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의 발견, 공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앞으로의 조사 연계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김해 회현리패총 조사 관련 자료

1907년에 현지를 조사한 이마니시 류(1875-1932)의 보고(今西龍 1907)로 일본인 연구자들은 김해 회현리패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후 일본인 연구자가 여러 번 조사하면서 이 유적은 한반도의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의 이행기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특히 1920년의 발굴조사성과(濱田耕作 외 1923)를 바탕으로 설정된 ‘금석병용기’, ‘김해기’라는 시대개념의 평가에 관해서는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다. 또 1934년에 발견된 옹관이 일본 규슈 북부에서 유행한 대형옹관 편년의 한 형식(김해식)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다시피 이 유적은 일본 야요이시대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한 유적인데도 김해 회현리패총의 실태에 관해서는 불분명한 부분이 많았다. 그 최대의 이유가 대부분의 발굴조사에 대한 정식 보고가 없음을 들 수 있다. 또 그동안의

논쟁에 큰 영향을 미친 1920년 조사에서 출토된 토기의 대부분을 현재도 교토대학 고고학 연구실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토유물을 상세히 재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2013년 말에 국립김해박물관에서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일환으로 김해 회현리패총 관련 자료를 정리하기 위한 협조 요청이 왔다. 필자는 교토대학 관계자와 협의해서 종래 공개하지 않았던 1920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을 국립김해박물관이 조사해서 그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필자는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남아 있는 1920년 발굴조사 관련 서류와 선술한 도리이 류조의 1917년 발굴조사 관련자료, 그리고 우메하라 고고자료 안에 있는 1923년 및 1935년 발굴조사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그 성과를 보고하게 되었다.

1920년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1920년 발굴조사 보고서의 사진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필자가 미리 유물을 정리했다. 그리고 국립김해박물관 일행이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유물을 촬영하고, 주요한 유물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측했다. 이 조사성과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를 종합해서 1920년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유적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인 화천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보고서 간행을 통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해 회현리패총 조사 관련 자료 가운데,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남아 있는 자료는 토기 실측도 및 보고서 도면을 편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면 정도이며, 수량도 내용도 적고, 대부분의 관련 자료는 우메하라 고고자료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 선술한 것 같이 도리이 류조 기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917년 발굴조사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유리건판사진 및 출토 유물과 종합함으로써 당시의 조사 상황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었다. 하마다 고사쿠가 1920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김해 회현리패총을 금석병용기 유적이라고 평가했는데, 도리이는 이 패총이 삼국시대보다는 빠르고 석기시대(유사 이전)보다는 늦은 금속기 시대의 유적이라고 주장했다(鳥居龍藏 1924). 하지만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이의 주장은 거의 무시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도리이의 주장은 1917년 조사의 층위학적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4. 다이쇼(大正) 2년도 고적조사 관련 사진자료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 덕분에 일본 소재 관련 자료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릴 수 있었던 예로써,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이 소장하는 다이쇼 2(1913)년도 고적조사 관련 사진의 정리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吉井秀夫 편 2022). 이들 사진자료는

“北朝鮮滿洲輯安縣遺物遺蹟寫眞”이라는 제목의 4개 상자에 들어있는 계287장의 사진들이다. 당시 교토대학에 유학중이던 김규운, 장우영 두 유학생에게 부탁해서 기본적인 목록을 만든 결과 이들 사진은 세키노 다다시, 야쓰이 세이이치, 구리야마 슌이치(栗山俊一), 이마니시 류가 참가한 다이쇼 2년도 조선고적조사 때에 촬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사진의 내용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행된 유리건판목록(국립중앙박물관 1997)의 사진과 어느 정도 대응 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이들 사진을 고화소로 복제했을 때에 다시 검토한 결과, 사진 대장에 남아 있는 번호는 사오토메 마사히로(早乙女雅博)가 세키노 다다시 자료에서 찾아서 보고한 다이쇼 2년 조선고적조사약보고에 첨부된 ‘大正二年撮影朝鮮古蹟寫眞目錄’의 사진번호와 거의 일치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같은 사진 목록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는 조선고적조사 사업 관련 자료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래서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이 소장하는 사진들은 다이쇼 2년도 조사를 마무리한 후, 유리건판을 조선총독부박물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진 목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세트의 사진들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에 이들 사진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리건판사진과 비교해 봤다. 또 이들 사진이 “조선고적도보”에 어떻게 게재되어 있는지도 검토했다. 그 결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리건판이 존재하지 않는 사진이 “조선고적도보”에 게재된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사진을 인쇄할 때 일반적으로 이용된 콜로타입 인쇄는 유리건판을 직접 이용해서 원판을 만든다. 그러므로 한번 총독부박물관에 제출한 유리건판 가운데, 보고서에 쓸 것들은 일본 내지로 가져갔기 때문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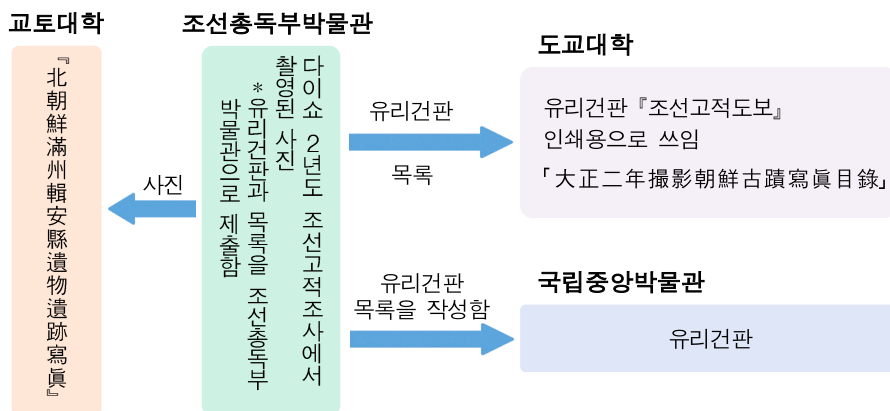


그림 3. 다이쇼 2년도 조선고적조사에서 촬영된 사진의 행방

이상과 같은 검토 결과,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에 있는 사진들이 조사 당시의 사진 전모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이 사진자료와 복명서 및 사진 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당시 조사의 상세한 활동내용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진은 촬영장소, 촬영일자, 촬영자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촬영대상인 각 유적의 변화를 생각하기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 일본 소재 일제강점기 자료를 공개 및 공유를 위한 몇 가지 제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필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을 위해서 교토대학을 비롯한 일본 소재 조선고적조사사업 관련 자료를 소개해 왔다. 한국쪽과 일본쪽 자료를 함께 검토한 결과, 경주 금관총, 김해 회현리패총, 대구 달성, 경주 월성 등의 조사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또 조사 당시에 촬영된 사진들의 전체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공개한 유리건판자료와 일본 각 기관에 남아 있는 인화사진을 종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 소재 일제강점기 조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인 연구자들에게 그 동안의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의 성과를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방 후 일본인 고고학자 사이에서 조선고적조사사업 및 한국고고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조선고적조사사업에 참가한 연구자가 모두 별세한 지금, 그들이 남긴 자료가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또 소위 징용공 문제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 변화에 따라 조선고적조사사업에 대한 제문제는 ‘자신과는 관계없다’, 혹은 ‘한일 양국 사이에서 벌써 해결된 문제이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일본인 연구자가 적지 않은 것이 현상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은 일차 자료의 검토를 통해 당시의 일본인 연구자가 독점한 조선고적조사연구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 필자는 당시의 일본인 연구자의 조사연구 성과가 조선고적조사연구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의 일본고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해 왔는데(吉井 2013, 2016), 이 일제강점기 자료 조사사업이 필자의 주장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김해 회현리패총의 역사적인 평가에 대한 하마다 고사쿠와 도리이 류조의 의견 대립은 같은 시기 일본열도의 선사문화, 특히 야요

이 문화에 관한 논쟁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리이가 주장한 학설의 근거가 된 1917년 조사의 실태가 밝혀진 것을 일본인 연구자가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출토 유물의 재검토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성과가 나왔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일본인 연구자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필자 자신의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둘째, 일본 소재 관련 자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한국측 자료와 종합하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겠다.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조선고적조사사업에 관한 자료는 현재 한국과 일본 양쪽에 나누어서 존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한국측에 남아 있는 자료 정리만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일제강점기 자료 공개사업이 증명해 왔다. 그리고 일본에 남아 있는 야장 및 조사일기 같은 자료뿐만 아니라 종래 주목되지 않았던 도면이나 사진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더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함이 증명된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일본측 소장자를 설득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보고서에서는 일본측 자료가 부록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양국 자료의 종합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자료 공개 이후, 일본에서도 관계 자료의 온라인 공개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현재는 기관마다 공개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로 따로따로 검색할 수밖에 없다. 각 기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자료 공개를 추진해 온 국립중앙박물관이 온라인 자료의 통합을 주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발표를 마무리하겠다.

참고문헌

1. 국문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편, 2011, 『경주 금관총 발굴조사보고서(국역)』.
- 國立金海博物館, 2014, 『김해 회현리패총』(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9輯).
- 國立中央博物館, 1997, 『유리원판 목록집 I -소판 1909년-1930년-』.
- _____, 2014a, 『동양을 수집하다』(2014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 _____, 2014b, 『유리전판으로 보는 고구려의 도성』(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전판 3집).
- 吉井秀夫, 2011, 「교토대학 고고학연구실 소장 금관총 관련자료와 그 성격」, 『新羅古墳 精密測量 및 分布調査 研究報告書』, pp.110-125.
- _____, 2014, 「일본 소재 김해패총 관련자료에 대해서」, 『김해 회현리패총』(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9輯, 國立金海博物館 學術調査報告第13冊), pp.185-215.
- 김대환·안경화, 2016, 『慶州 金冠塚(유구편)』(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22輯), 국립중앙박물관.
- 金赫中, 2016, 『慶州 金冠塚(遺物篇)』(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23輯), 國立慶州博物館.
-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1994, 『小川敬吉調査文化財資料』(海外所在文化財調査書 第5冊).
- 修德寺槿域聖寶館, 2008, 『至心歸命禮 수덕사! 천년의 아름다움』.
- 植山茂·高正龍·韓盛旭·松波宏隆, 2003, 『修德寺 大雄殿 -1937年 保存 修理 工事의 記錄-, 德崇叢林 修德寺』.
- 이사하야 나오토·김대환·김우대·쓰치야 다카후미, 2011, 「교토대학 종합박물관 소장 금관총 출토유물에 대하여」, 『신라고분 정밀측량 및 분포조사 연구보고서』,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慶州市.
- 이현태, 2014, 『大邱 達城遺蹟 -達城 調査報告書-』(日帝强占期 資料調査 報告 10輯).
- 咸舜燮, 2013, 「日帝强占期 鳥居龍藏의 慶州月城 및 大邱達城 調査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영남지역에서의 고적조사』.
- 황은순, 2016, 『石器時代 -鳥居龍藏 調査 琉璃乾板-』(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전판 8집).

2. 일문

- 穴澤和光·馬目順一, 1973, 「羅州潘南面古墳群-梅原考古資料による谷井濟一氏發掘遺物の研究」 『古代学研究』 70.
- 穴澤和光·馬目順一, 1975, 「昌寧校洞古墳群-「梅原考古資料」を中心とした谷井濟一氏發掘資料の研究」 『考古學雜誌』 第60卷 第4号.
- 有光教一, 1959, 『朝鮮磨製石劍の研究』(京都大学文学部考古学叢書二), 京都大学文学部.
- _____, 1962,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京都大学文学部考古学叢書三), 京都大学文学部.
- _____, 2007, 『朝鮮考古学七十五年』, 昭和堂.

- _____. 藤井和夫 編著, 2000, 『朝鮮古蹟研究会遺稿Ⅰ・慶州皇吾里第16号墳・慶州路西里 215番地古墳発掘調査報告書 1932-1933』, 財団法人東洋文庫.
- _____. 藤井和夫 編著, 2002, 『朝鮮古蹟研究会遺稿Ⅱ・公州宋山里 第29号墳・高靈主山 第39号墳発掘調査報告・1933, 1939』, 財団法人東洋文庫.
- 有光教一・藤井和夫 編著, 2003, 『朝鮮古蹟研究会遺稿Ⅲ・平壤石岩里 第218号墳・平壤貞柏里 第24号墳 発掘調査報告・1943』, 財団法人東洋文庫.
- 今西龍, 1907, 「朝鮮にて発見せる貝塚に就て」, 『東京人類学会雑誌』 第262号.
- 梅原末治, 1973, 『考古学六十年』, 平凡社.
- 梅原末治・藤田亮策 編著, 1946, 『朝鮮古文化綜鑑』 第一卷, 養徳社.
- _____, 1948, 『朝鮮古文化綜鑑』 第二卷, 養徳社.
- _____, 1959, 『朝鮮古文化綜鑑』 第三卷, 養徳社.
- _____, 1966, 『朝鮮古文化綜鑑』 第四卷, 養徳社.
- 浦川和也, 2003, 「小川敬吉と『小川敬吉資料』について・一朝鮮総督府の『文化財行政』に関する資料一」,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研究紀要』 第9集.
-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 2016, 『平成27年度テーマ展・小川敬吉資料展一朝鮮総督府の文化財調査官が遺したもの一』.
- 定森秀夫・内田好昭・吉井秀夫, 1990, 「韓国慶尚南道晋州水精峯 2号墳・玉峯 7号墳出土遺物一東京大学工学部建築史研究室所蔵資料の紹介」, 『朱雀』 第3集, pp.71-105(禹順姫訳 『伽耶通信』 第19・第20合輯、同誌編集部、1991年).
- 定森秀夫・白井克也, 1992, 「韓国慶尚北道高靈池山洞古墳群出土遺物一東京大学工学部建築史研究室所蔵資料の紹介一」, 『朱雀』 第5集.
- _____, 1999, 「韓国江原道溟州下詩洞古墳群出土遺物一東京大学工学部建築史研究室所蔵資料の紹介一」, 『朱雀』 第11集.
- 早乙女雅博, 1997, 「三国時代・江原道の古墳と土器一関野貞資料土器とその歴史的意義一」, 『朝鮮文化研究』 第4集.
- _____, 2007, 「関野貞の朝鮮古蹟調査(二) 一大正二年朝鮮古蹟調査略報告一」, 『韓国朝鮮文化研究』 第十号.
- 早乙女雅博・藤井恵介, 2000, 「朝鮮建築・考古資料基礎集成(1)」, 『朝鮮文化研究』 第7号.
- 早乙女雅博・藤井恵介・角田真弓, 2002, 「朝鮮建築・考古資料基礎集成(2)」, 『朝鮮文化研究』 第9号.
- 早乙女雅博・藤井恵介・角田真弓・李明善, 2004,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蔵・関野貞コレクション・フィールドカード目録』.
- 杉山信三編, 1996, 『韓国古建築の保存: 浮石寺・成仏寺修理工事報告』, 韓国古建築の保存刊行会.
- 関野貞研究会編, 2009, 『関野貞日記』, 中央公論美術出版.

- 朝鮮総督府, 1916, 『朝鮮古蹟図譜』第三卷.
- 東洋学術協会, 1966, 『梅原考古資料目録－朝鮮之部』.
- 徳島県立鳥居龍蔵記念館, 2014, 『鳥居龍蔵の国内調査－沖縄・南九州－』.
- 鳥居龍蔵, 1924, 「濱田・梅原両氏著『金海貝塚報告』を読む」, 『人類学雑誌』 39-1.
- 鳥居龍蔵, 1953, 『ある老学徒の手記・考古学とともに六十年』, 朝日新聞社.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3, 『金海貝塚発掘調査報告』(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1冊).
- _____, 1924 a, 『慶州金冠塚と其遺寶』, 本文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 _____, 1924 b,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図版上冊(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 _____, 1928, 『慶州金冠塚と其遺寶』, 図版下冊(古蹟調査特別報告 第3冊).
- 咸舜燮(吉井秀夫訳), 2015, 「植民地時代における鳥居龍蔵の慶州月城および大邱達城調査について」, 『徳島県立鳥居龍蔵記念博物館研究報告』 第2号.
- 藤井恵介, 2006, 「関野貞資料と関野貞展の私的覚書」, 『文化資源学』 第4号.
- 藤井恵介・早乙女雅博・角田真弓・西秋良宏編, 2005, 『関野貞アジア踏査』(東京大学コレクション X X) 東京大学総合研究博物館.
- 吉井秀夫, 2002, 「釜山考古会とその活動について」『倭城の研究』 第5号, pp.141-152.
- _____, 2006a, 『植民地朝鮮における考古学的調査の再検討』(平成15年度～平成17粘土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 _____, 2006b, 「釜山考古会と博物館建設運動」, 『喜谷美宣先生古稀記念論集』, pp.675-684.
- _____, 2006c, 「釜山考古会とその活動について再考－1935年以降の活動を中心に－」, 『有光教一先生白寿記念論叢』, pp.341-354.
- _____, 2008, 「澤俊一とその業績について」, 『高麗美術館研究紀要』 第6号, pp.77-89.
- _____, 2011, 『写真資料の分析を通してみた植民地朝鮮における考古学的調査の再検討』(平成22年度～平成25年度科学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研究成果報告書).
- _____, 2013, 「朝鮮古蹟調査事業と「日本」考古学」『考古学研究』 第60巻 第3号, pp.17-27.
- _____, 2015, 「鳥居龍蔵による慶尚北道・慶尚南道調査関連資料について」, 『徳島県立鳥居龍蔵記念博物館研究報告』 第2号, pp.43-70.
- _____, 2016, 「植民地と歴史学」, 『岩波講座・日本歴史』 第22巻(歴史学の現在), pp.105-132, 岩波書店, 2016年2月).
- _____, 2020, 「朝鮮半島調査」, 『鳥居龍蔵の学問と世界』, pp.87-110.
- _____, 編, 2022, 『京都大学考古学研究室所蔵・北朝鮮・満州・輯安縣遺物遺跡写真』, 京都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附属文化遺産学・人文知連携センター比較文化遺産学創成部門.
- 楽浪漢墓刊行会 編著, 1974, 『楽浪漢墓』 第一冊, 真陽社.
- _____, 1975, 『楽浪漢墓』 第二冊, 真陽社.

A Japanese Researcher's View of the Initiative to Enhance Public Access to Data Obtain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Yoshii Hideo*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researchers from Tokyo Imperial University and Kyoto Imperial University conducted archaeological research as part of the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After the investigations, they submitted the excavated artifacts and glass plates to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Museum along with written statements. The field records, drawings, and printed photos of the investigations, on the other hand, were taken to Japan for the purpose of writing up excavation reports. After liberation, materials related to the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were separately housed at various institutions in Korea and Japan, acting as great obstacle to researching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that had taken place at the time.

As part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s initiative to enhance public access to data obtain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materials relating to the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in Japan, including Kyoto University, were introduc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Korean and Japanese data together, new facts were revealed about the investigations of Geumgwanchong Tomb (Gŭmgwanch'ong Tomb) (Gyeongju), Hoehyeon-ri Shell Midden(Hoehyŏn-ri Shell Midden) (Gimhae), Dalseong(Dalsŏng) (Daegu), and Wolseong(Wŏlsŏng) (Gyeongju). In addition, it was pointed out that in order to reveal the overall nature of the photographs that had been taken at the time of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compile together the dry glass plate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the printed photographs remaining in the Japanese institutions.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reality of the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e introducing related materials remaining in Japan and compile them with the data remaining in Korea. It is hoped that the data from both countries can be brought together online. In addition, in order to promote such a project,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to the Japanese audience the results of the initiative to enhance public access to materials obtained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Key words : Joseon Historical Remains Survey Project, dry glass plates, Geumgwanchong Tomb (Gŭmgwanch'ong Tomb), Hoehyeon-ri Shell Midden(Hoehyŏn-ri Shell Midden)

* Professor, Kyoto University

